

JUNE
2021

M
LUXURY

RAMI MALEK.
MEMBER OF THE PASHA
COMMUNITY ON CARTIER.CO.KR

부산 · BUSAN · 釜山

PASHA DE *Cartier*



BORN IN LE BRASSUS



AUDEMARS PIGUET
Le Brassus



RAISED AROUND THE WORLD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49-5917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809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luxury.designhou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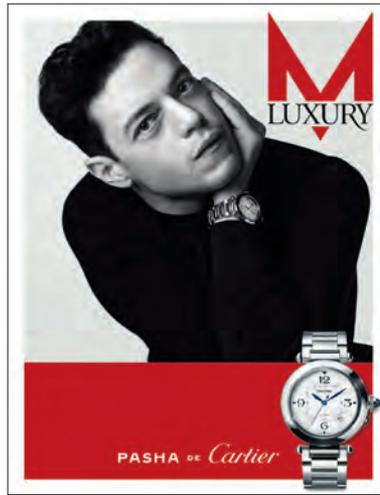
<럭셔리M>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생생한 온라인 취재 현장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만드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Pasha Community

까르띠에가 개성과 다양성, 창의성으로 성공의 코드를 바꾼 이들을 '파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가수 프레디 머큐리로 변신한 배우 라미 말렉,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영국 배우 메이지 윌리엄스, 후주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트로이 시반, 스타일 아이콘 윌로 스미스, K-팝 아이돌 그룹 '갯세븐' 출신의 잭슨 왕이 그 주인공이다.

CONTENTS



THE 55 BEST IN BUSAN

08 SPECIAL
부산에서 꼭 경험해야 할 35가지

12 DESIGN SPOT
지금 떠오르는 디자인 스팟 7

18 GALLERY
아트 트렌드를 짚어보는 10개 갤러리 투어

22 INNOVATOR
부산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한 '닷'

24 CAR
해변의 아름다움을 마주한 프리미엄 SUV

28 DINING
부산 특급 호텔에서 즐기는 다이닝 4

30 FAIR
6월 17일 개최하는 2021 부산디자인위크



04 HEAD TO TOE
6월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식

06 BUY NOW
무더위를 대비하는 패션·뷰티 아이템

32 CUISINE
초여름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음료

EDITORIAL

편집 02-2262-7437

편집장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FASHION

기자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기자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BEAUTY

수석기자 정애경 Aekyung Jung · ak.jung@design.co.kr

기자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LIVING/FEATURES

수석기자 김수진 Sujin Kim · jin@design.co.kr

기자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기자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게스트 에디터 이승률 Seungryul Lee

미술장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포토 디렉터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이기태 · 이경욱 · 이창화

Tone Studio 디렉터 염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황인우 Inwoo Hwang

교정·교열 전남희 Namhee Jeon

ADVERTISING

광고 02-2262-7401

유통 관리 02-2262-7407

정기구독 080-007-1200

이사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차장 문민혁 Minhyuk Moon · moonmh@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부장 이근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부사장 김은령 exlibris@design.co.kr

DESIGN HOUSE INC.

디자인사업부부장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전시사업부부장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경영전략부부장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법률 고문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회계 자문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발행인 이영혜

2021년 6월호 통권 제56호.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2021년 3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NOOZ



내 피부처럼 자신 있는 편안함
심리스 피니쉬 파운데이션

스쿠 누드 웨어 리퀴드 EX

NUDE WEAR LIQUID EX



HEAD TO TOE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바로 그 문턱에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도울 패션 & 뷰티 아이템과 흥미로운 전시, 매력적인 위스키 라인업까지. 여름의 시작 6월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글 안서경(ASG)·이지형(LJH)·최윤정(CYJ)·한동은(HDE) 기자

NEW WHISKY ARRIVALS



GLENFFIDICH GRAN RESERVA 카리브해 럼 캐스크에서 글렌피딕 21년 원액을 4개월 이상 추가 숙성해 이국적인 향을 담아 완성한 '글렌피딕 21년 그랑 레제르바'가 오렌지 컬러의 새로운 패키지로 탈바꿈했다. 무화과, 생강, 라임 등 한층 풍부하고 산뜻한 향을 더해 복합적인 맛이 특징이다. '글렌피딕 23년 그랑크루' 출시 이후 두 번째 럭셔리 레인지 제품으로 추후 그랑 시리즈를 완성할 추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2152-1600 (ASG)

MACALLAN ESTATE 약 198헥타르(약 60만 평)에 달하는 맥캘란 영지에서 특별 재배한 보리를 원료로 사용하고, 1년 중 딱 일주일 동안만 증류해 생산하는 '맥캘란 에스테이트'가 국내에 출시되었다. 계피와 오렌지, 레몬의 산뜻한 향과 바나나, 캐러멜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긴 여운을 남긴다. 패키지 내부에는 맥캘란 영지의 자연경관을 항공사진으로 꾸며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문의 031-757-4600 (LYC)

POLO SHIRTS



Polo Ralph Lauren

Ermenegildo Zegna

Isabel Marant Homme

Laco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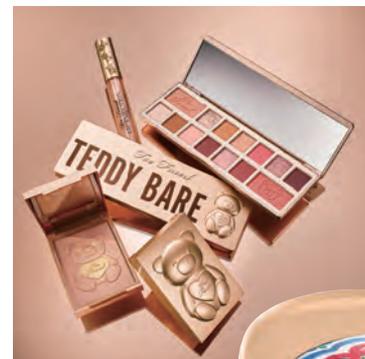
ERMENEGILDO ZEGNA 매 시즌 에르메네지질도 제나의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품목 중 하나인 폴로 셔츠. 퓨어 리넨, 퓨어 코튼 등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안하며, 그레이와 라이트 블루부터 진저 옐로와 네이비블루 컬러까지 이탈리아 감성이 담긴 우아한 색상으로 전개한다. 문의 518-0285

POLO RALPH LAUREN 폴로 셔츠를 생동감 넘치는 32가지 컬러로 전개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겨 입을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 어린이 및 반려견용으로 다양하게 제안한다. 전통과 개성을 고루 갖춘 디자인이 특징. 문의 6004-0220

ISABEL MARANT HOMME 2021 S/S 시즌 주력 아이템으로 '아나피코' 폴로 셔츠를 제안한다. 여유로운 핏으로 제작해 색상과 무늬가 뚜렷한 다른 상의 위에 덧입기 좋다. 블루, 네이비블루, 크림, 그린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516-3737

LACOSTE 아이코닉한 '폴로 셔츠' 컬렉션이 한층 다채로워졌다. 경쾌한 색채로 물든 '프렌치 레굴러 핏' 폴로 셔츠부터 오픈 칼라에 톤온톤 배색과 립 조직 밀단으로 마무리한 '아이스 코튼' 폴로 셔츠 그리고 폐의류를 재활용한 친환경 '루프 폴로' 셔츠까지. 문의 310-1726 (CYJ)

SUMMER P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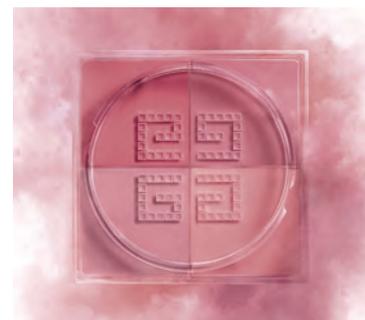


TOO FACED

귀여운 테디베어 장식을 더한 '테디 베어 컬렉션'을 소개한다. 다양한 질감으로 구성된 '베어 잇 올 아이섀도우 팔레트', '베어 잇 올 브로저', '립 인젝션 엑스트림'으로 구성된다. 문의 6971-3226

DOLCE & GABBANA

완벽하게 밀착되며 얼굴에 은은한 광채를 부여하는 '솔라 글로우 헬시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보인다. 여러 번 덧발라도 텁텁해지거나 밀리지 않는 것이 장점. 문의 080-564-7700



GIVENCHY

양 볼에 생기와 윤기를 더하는 '프리즘 리브르 블러쉬'를 출시한다. 마이크로 피그먼트를 함유해 자연스럽게 발색되며 건강한 피부 표현을 완성한다. 문의 080-801-9500 (LJH)

CELEBRITIES AT THE EVENT



영화 <프라미싱 영 우먼>으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캐리 멀리건. 홀로그램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오프숄더 드레스는 발렌티노 2021 S/S 시즌 오프 큐튀르 의상이다.

제36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참석한 배우 줄리아 가너의 모습. 크리스털과 깃털 장식이 조화로운 프라다의 회색 드레스를 착용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포토 옐 행사에 나란히 선 배우 사차 배런 코인과 아일랜드 피셔 커플. 보타이와 주얼리로 두 사람 모두 네크라인에 포인트를 줬다.

제93회 아카데미 단편영화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감독 제니스 던컨은 넷트 톱과 케이프 스타일의 턱시도 재킷으로 개성 있는 시상식 패션을 완성했다. 발렌티노 제품.

배우 파아파 에시에두가 제36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베스트 앙상블 캐스팅 부문을 수상했다. 핑크 니트를 매치한 프라다 룩이 잘 어울린다. (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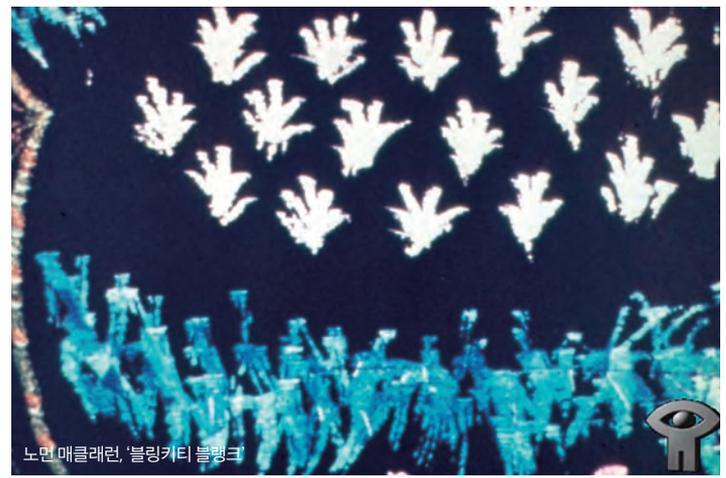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포착한 배우 코사 알리. 털 조각을 겹쳐 만든 드레스부터 크롭트 재킷, 액세서리까지 모두 알렉산더 맥퀸 제품을 선택했다.

NEW EXHIBITION



최정화, '너 없는 나도, 나 없는 너도 Holobiont'

<정원 만들기 Gardening> 대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지내는 현대인에게 식물을 가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정원 꾸미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주는지,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에서 개최 중인 <정원 만들기>에서 사유할 수 있다. 전시는 '땅'에서 시작해, '정원가들', '정원 일의 기쁨과 슬픔', '나의 정원'이라는 4가지 테마로 이어진다. 거대한 크기의 채소가 전시장을 가득히 채우는 최정화의 설치 작품부터 정원과 식물을 주제로 한 영화, 에세이와 소설 등의 문예 작품까지 서울 도심에서 관람객들에게 식물과 함께하는 여유를 선사한다. 10월 24일까지. 문의 318-3233



노민 매클래런, '블링키티 블링키'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 <토이스토리>, <소울> 등 수준급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현대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나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많은 작가의 실험과 노력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7전시실에서 1930~1940년대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선도한 거장 5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종이 인형 그림자를 촬영하는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로테 라이니거, 킷마다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 촬영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대가 카렐 제만 등은 수작업만으로 동심의 세계를 펼친 역사적인 인물들. 그들의 고전 애니메이션 작품 24편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기회다. 9월 26일까지. 문의 3701-9500 (HDE)

BUY NOW



녹색 페인팅으로
포인트를 준 펜던트
네크리스. 포츠1961
(ports1961.com)



100% 비스코스 소재로 제작한
'카라이브' 블라우스.
레오나드(310-5341)



Zimmermann



55x55cm 크기로 제작한
'플로라 실루엣 스케어' 실크 트윙 스카프.
멀버리(3438-6140)



새틴 소재 위에 꽃무늬를 수작업으로
그린 '비비에 슬라이드 블로썸' 물.
로저비비에(6905-3370)

BLOOMING HOLIDAY

근사한 휴양지 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꽃무늬 아이템을 갖추도록!
가벼운 소재에 화사한 색상까지 겸비한 것이라면 더욱 좋다.

글 최윤정 기자 | 사진 염정훈 | 어시스턴트 차세연

파인애플과 히비스커스
모티프를 자수로 새긴 튜닉 셔츠.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549-5741)



잠금장치 부분에 자석을 삽입하고
4개의 손잡이를 부착한 '위드라' 쇼퍼백.
이자벨 마랑(516-3737)

Tom Ford



색색의 꽃무늬 프린트와
역동적인 아웃솔이 돋보이는 '블래바' 스니커즈.
주세페 자노티(543-1937)



허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트로피컬 패턴의 스웬 쇼츠.
툼 포드(6905-3534)

레몬, 만다린, 민트, 블랙 커런트가
조화를 이루며 신선한 향을 만들어내는
'오도랑쥬 베르트 오드코롱'.
에르메스(310-5174)



Fendi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 한잔이 생각나는
상쾌한 베티베르의 향을 담은
'퍼퓸 드 샤타카이 베티베'.
샤타카이(517-0902)



자몽, 블랙 페퍼의 특 쓰는 향을 시작으로
베티베르, 팔로 산토의 감각적이고
묵직한 향으로 이어지는 '오픈 스키 오드 퍼퓸'.
바이레도(3479-1688)



특 쓰는 자몽 향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헤스페리데스 그레이프프루트 오드 퍼퓸'.
프레쉬(080-822-9500)

FRESH CITRUS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기분을 산뜻하게 전환하는 데 시트러스 향수만 한 것이 없다.

글 이지형 기자



생기 넘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분위기를
레몬과 베르가모트 향으로 풀어낸
'리모네 디 시칠리아 오드 퍼퓸'.
에어린(6971-3212)



상큼한 이탈리아 레몬과 부드럽고 우아한
오렌지 블라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콜론 352'.
엑스니힐로(2056-1295)



Acne Studios

관능적인 로즈를 시작으로
베티베르로 이어지며 파출리로
상쾌하게 마무리되는 '포멜로'.
조러브스(3447-3600)



쌉싸름한 자몽, 부드러운 앰버와
따뜻한 머스크가 만나
독특한 시트러스 향을 완성하는
'베르가모트 22'. 르 라보(6971-3204)

동쪽과 남쪽은 바다와, 서쪽과 북쪽은 육지와 맞닿아 있어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부산.

전 세계가 사랑하는 국제 관광 도시이며, 국제영화제 개최와 함께 '영화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엔 I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에 힘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면서 '아트 도시'로도 거듭나는 중이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도시, 부산의 모든 것.



THE 55 BEST IN BUSAN

감천문화마을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부산의 명소 하면 빼놓기 아쉬운 곳. 다채로운 색을 품고 있는 수많은 집들이 인상적이다. 한낮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감천 집 등 밝히기’ 행사 때 방문하면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다.”

_영상 제작자 임진열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부산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다채로운 문화를 담은 공간이다. 키즈 프로그램, 디자인 클래스 등 콘텐츠도 풍성하다. 4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마이클Michael’은 탁 트인 느낌의 인테리어가 인상적. 부산의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요리도 만족스럽다.” _소미노 서무원 대표

황령산 드라이브 코스

“부산에서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드라이브 코스.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초여름 밤 걷기에도 좋다. 광안대교 등을 포함한 교각의 눈부신 야경을 꼭 감상하길 바란다.”

_비아이키노 부산점 임현석 부장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스카이 캡슐과 해변 열차를 운영한다. 시간만 잘 맞추면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처럼 느껴진다.”

_바리스타 김아영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다대포 주변에 자리한 작은 동네 홍티마을에는 홍티예술촌과 홍티아트센터가 있다.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주 작가 및 다양한 창작자들의 작품 전시를 선보인다. 부산의 숨은 아트 신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_F1963 도서관 양소선 사서



@midnight_lucio

동래밀면

“어릴 때부터 자주 방문했던 추억의 동네 맛집. 식사 전, 주전자에 담긴 진한 육수만 마셔봐도 그 순간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비빔면과 물면 둘 다 추천한다. BTS도 다녀갔다는 후문이다.”

_포토그래퍼 양경준





속시원한대구탕

“그릇이 흰히 보일 만큼 국물이 맑고, 원가가 들어가긴 한 건가 싶을 만큼 깨끗하고 인위적이지 않다. 술 마신 뒤 해장에도 좋지만,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라도 찾아가고 싶은 곳이다. 직접 만든 반찬도 맛있고 인심까지 후하다.”
_ 프리랜스 에디터 이선화



부산 요트 투어

“낭만적이고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추천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선셋 투어’. 아름다운 일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다 마치 해외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운항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짧은 관광도 가능하다.” _ LG전자 VS스마트 영업·마케팅 전략팀 김한나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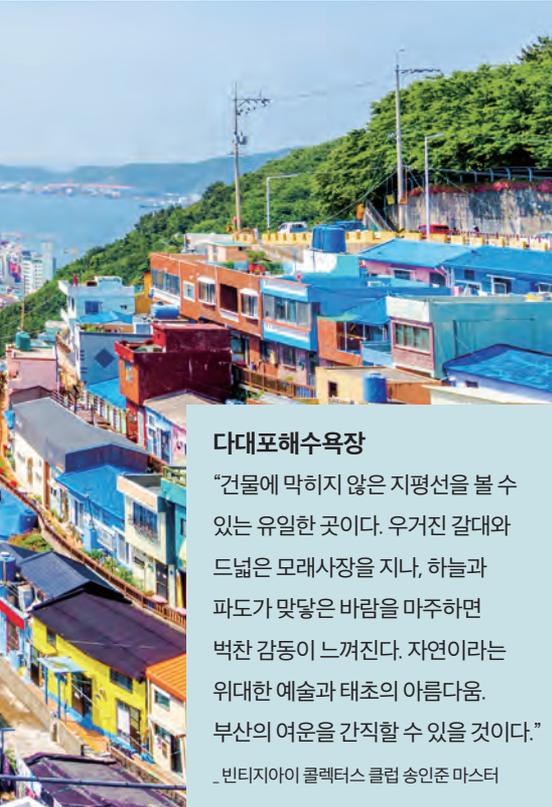


부산시립미술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있는 것을 더해가는 부산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마치 시간도 잠시 머물러 있는 듯한 우수한 공간과, 언제나 이곳만의 특별한, 앞선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영감의 공간이다.” _ 반클리프 아펠 조소민 커뮤니케이션 & PR 매니저

하브커피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커피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한적한 일본 마을의 정취가 느껴지기 때문. 작은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오래도록 생각날 것이다. 때로는 그리워질지도.”
_ <럭셔리> 뷰티 에디터 이지형



다대포해수욕장

“건물에 막히지 않은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우거진 갈대와 드넓은 모래사장을 지나, 하늘과 파도가 맞닿은 바람을 마주하면 벅찬 감동이 느껴진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예술과 태초의 아름다움. 부산의 여운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_ 빈티지아이 콜렉터스 클럽 송인준 마스터

해운대 작은zip

“해운대 좌동에 위치하는 3층짜리 에어비앤비. 우드 톤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숙소로 3층부터 5층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장소인 만큼 한 달 전부터 스케줄을 체크해 예약하는 것은 필수.”
_ <신세계> 패션 에디터 조소희

베르크 로스터스

“전포동에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콘셉트부터 커피 맛까지 가장 추천할 만한 곳. 서울에서도 주문해서 마실 정도다. 2층은 독일 수도원 콘셉트로 꾸몄고, 주문을 받는 지하 1층은 각종 굿즈를 판매하는 소름 같은 분위기다. 직접 만든 수제 쿠키도 맛있다.”
_ 프리랜스 에디터 장정진



@werk.roasters

구프

“카페 거리가 형성된 전포동에 자리한 곳으로 낮에는 브런치 카페, 저녁에는 와인 바로 운영한다. 마치 포틀랜드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센스 있는 선곡 덕분에 부산의 젊은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_ WSL 카페 심재우 매니저



나의 피는 라멘으로 되어있어

“사장 기분에 따라 때마다 가게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단골이 아니면 찾기 어렵다. 힛트는 전포동 카페 구프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것! 매장이 작는데 대기 줄은 길어서 쉽게 먹을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서로 2호점을 내겠다고 할 만큼 맛있기로 소문났다.”
_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구현미

천연제작소

“부산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다회용품 구입할 수 있다. 삼푸, 세제 등 용기를 제외한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는 리필 공간도 있으니 빈 용기를 가져가길 추천한다. 식물이 많고 채광이 좋아 방문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 _ <럭셔리> 피쳐 에디터 한동은



버거샵

“부산에서 수제 버거와 맥주를 즐기고 싶다면 꼭 들려야 할 곳. 해운대역 뒷골목 어느 주택을 키치하게 개조했다. 쫄득한 식감의 번, 풍미 가득한 쇠고기 패티가 중독적인 맛을 선사한다.”
_ 베르크 로스터스 김석봉 대표



@burgershopsbusan



흰여울문화마을

“영도 절영해안산책로를 따라 가파른 절벽 위 작은 집들이 정겹게 모여 있는 동네다. 색색의 그라피티로 채워진 마을을 거닐며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 독립 서점 등을 구경하다 보면 서정적인 부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_ 부산주당 조혜령 매니저

아홉산숲

“오랜 시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호된 숲. 편백나무, 삼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있지만 대나무 숲이 가장 매력적이다. 방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찾아갈 것을 권한다.” _ 포토그래퍼 박도연



에디션 알리앙스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4층에 위치한 에디션 알리앙스는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데이비드 호크니, 최정화 등 유명 작가의 희귀한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곳!”

_ <럭셔리> 디자이너 김보성



다리집 떡볶이

“<수요미식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40년 전통을 지닌 부산 떡볶이 맛집으로 소개한 곳으로, 나 역시 학창 시절부터 즐겨 찾았다. 두껍고 쫄깃한 가래떡의 질감이 매력적이고, 기다란 오징어튀김도 별미다.” _ 포토그래퍼 이창화



클램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길 중간쯤에 위치한 와인 바 ‘클램’.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산책로도 같이 있어 외부에 앉을 것을 추천한다. 감바스 알 아히요와 상그리아를 주문한 뒤 바닷바람과 함께 즐기면 안성맞춤이다. 광안리 지점도 있다.” _ 빅하우스 한승재 대리



오디너리핏 부산점

“날씨 좋은 날, 이곳 루프톱에서 도시의 풍광과 함께 즐기는 트리플 에그 샌드위치와 커피는 쌓인 피로를 풀어준다. 사진 찍기 좋은 인생 샷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무브먼트랩 플래그십 스토어도 나란히 있다.” _ 파크 하얏트 부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이지홍 팀장



모모스커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한국인 최초 우승자 전주연 바리스타가 소속된 곳으로 영도 등 부산 곳곳에 지점이 자리한다. 특히 온천장 본점에서 맛보는 모모스커피의 향미는 여타 커피 전문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_ 아레아6 운영센터 오진선 대리

팔레트

“낮에는 프렌치 코스 요리 레스토랑, 밤에는 단품 위주의 내추럴 와인 바다. 부산에서 무슨 프렌치나 할 수도 있지만 광안대교가 보이는 멋진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제로컴플렉스’ 출신 김재훈 셰프의 음식을 맛보고 나면 새로운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 _ 아티스트 이정민



라이프 커피 & 티

“미드 센추리 가구와 다양한 예술 서적, 인테리어 소품을 구경할 수 있고, 5층에는 통창으로 이루어진 카페가 자리한다. 음료 가격이 다소 높지만, 경치 값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만하다.”

_ <더네이버> 패션 에디터 김재경

똥보집

“중앙동의 노포 중 하나. 콩나물밥과 연탄주꾸미, 녹빈(녹두빈대떡) 등의 메뉴가 있으며 식사를 하기에, 술 한잔 즐기기에 완벽한 곳이다. 누군가 부산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마다 1순위로 추천한다.”

_ 더레이어 컴퍼니 유지현 대표

무브먼트랩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 카페, 전시장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 특히 리빙 오브제들을 간결하고 미학적으로 큐레이션한 방식이 눈여겨볼 만하다. 해운대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_ 미들스튜디오 김은비 대표

딥슬립커피

“주기적으로 바뀌는 신진 작가들의 전시 공간 겸 카페로 이루어진 1층, 패션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로 이루어진 2층을 합친 공간. 낮은 조도의 조명과 색조명, 미술품들이 시각과 촉각을 만족시키고, 디제이가 선곡한 믹스 리스트가 귀를 즐겁게 한다.”

_ 논픽션 부산점 픽서니스트 윤혜림



미락슈퍼

“로컬 푸드가 아닌 특별한 한 끼를 원할 때 추천하는 곳. 부산 출신 김성현 셰프가 국내 최초로 1인 셰프 한식 다이닝을 제공한다. 메인 디시인 5가지 부위의 돼지고기 오마카세가 훌륭하고, 제철 채소 요리나 드라이 에이징 생선 요리도 식욕을 돋운다.”

_ 캘러웨이 어패럴 마케팅팀 원지현 부장



@meerock_restaurant

수안커피

“간결한 모노크롬 톤의 인테리어와 세련된 건축물, 조경 디자인이 인상적인 동래동 카페. 중앙에 자리한 로스팅 기계를 통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시음해볼 수 있다.”

_ 프레젠티 상품디자인팀 디자이너 전승엽



@suancoffee.official



아난티 힐튼

“호텔 내부에 볼거리가 많은 데다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바다를 보며 산책할 수 있다. 1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다모임’도 추천. 바다와 이어진 인피니티 풀을 바라볼 수 있어 꼭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한 끼 식사만으로 기분 전환하기 좋다.”

_ <더네이버> 패션 에디터 송유정

민락수변공원

“광안리에서 해운대 쪽으로 해안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작은 공원. 최근엔 살짝 변화한 분위기가 되었으나 친근한 맛은 여전하다. 다른 것 필요 없이 노천에 앉아 즐기길 권한다. 가끔 작은 공연들이 열리는데 그래서 더 정겹다.”

_ <스타일 조선일보> 디렉터 장라윤



부산 바다미술제

“홀수 해마다 대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미술제. 바다미술제가 끝난 이후에도 해수욕장에 남겨진 몇 점의 설치미술이 예술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전한다. 2021년 부산 바다미술제는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

_ 패션 디자이너 정유진

누리마루 APEC 하우스

“해운대의 동백섬 전망대를 지나 누리마루 APEC 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을 거닐다 보면 여기가 도심이라는 것을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과 조경을 마주할 수 있다. 곳곳에 유명한 액자 포토 존이 있어 소중한 이와 함께 방문하면 좋다.”

_ BHF 마케팅팀 이체승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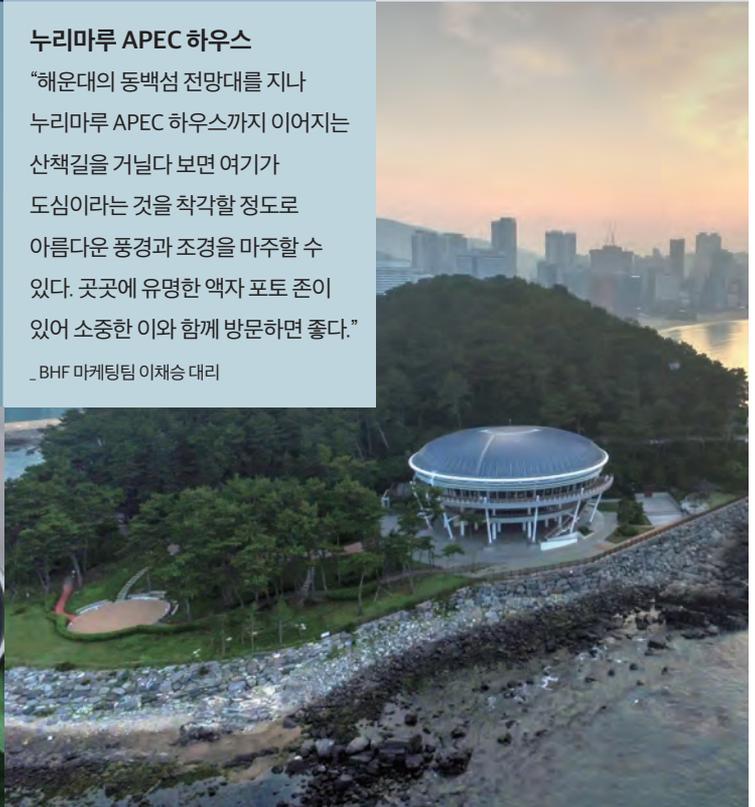
부산 개곰밀면

“20년 넘게 가야밀면에만 익숙해져 있던 내게 개곰밀면의 닭고기 고명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요즘도 부산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함께 들르는 곳. 곱배기는 양이 많으니 기본에 만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_ <하퍼스 바자> 기획팀 김신정 차장



@ ssg.com



부산 디자인 스폿 7

발품을 들여 감각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일은 단조로운 일상을 산뜻하게 환기시켜준다.

부산의 디자인 문화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7곳을 소개한다.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이기태, 이창화 기자



1

F1963

부산의 대표적 복합 문화 공간 'F1963'은 끊임없이 진화 중이다. 몇 해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더니 최근 현대모터스튜디오가 들어선 뒤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F1963은 부산에 뿌리를 둔 글로벌 기업 고려제강이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공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뒤 2016년 9월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이 된 것을 계기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산역과 해운대 사이, 어디든 접근성이 좋은 망미동의 지리적 이점 덕분에 국제갤러리, 카페 '테라로사',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서점 등 흥미로운 공간으로 하나둘 채워졌고, 연간 방문객이 약 60만 명에 달하는 부산의 명소가 떠올랐다.

국내 재생 건축이 화두이던 2016년, F1963은 조병수 건축가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공장의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린 채 약 1000㎡에 가까운 부지를 탈바꿈했기 때문. 오랜 세월을 버틴 목재 트러스, 철골 와이어 등을 오브제로 활용하고, 선을 간결하게 정리해 살려두는 식으로 공간을 꾸렸다. 본래 막혀 있던 공간 가운데에 중정을 두어 환기와 채광을 높였고, 푸른 익스팬디드 메탈을 외관에 부착해 모던한 분위기로 공간을 확장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현대모터스튜디오가 자리한 신관 공간은 원오원건축사사무소 최욱 소장이 총괄했다. 기존 F1963 건물과의 연속성을 위해 와이어와 철골을 활용



2

했고, 2~3층 전시장 천장에는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알루미늄 루버를, 4층 천장에는 F1963의 외관 소재와 같은 익스팬디드 메탈을 사용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유리 등 폐자재를 가공해 만든 테록시를 마감재로 쓴 것 역시 옛것과 새것의 연속성을 꾀한 시도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Design to Live by'라는 콘셉트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디자인을 주요한 가치로 내걸면서 F1963은 한층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공간이 될 듯하다. 아트와 테크를 융합한 전시장을 마련한 데다 건물 외부에도 크리에이티브 월을 배치해 디지털 아트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의 작품 등 디지털 아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 기존 국제갤러리의 컨템퍼러리 아트 전시와 뉴 미디어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신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음악을 위한 공간인 GMC(Gum Nanse Music Center)가 더해졌다. 부산 출신의 지휘자 금난새 음악감독과 고려제강이 3년간 준비해 탄생한 곳으로 지역의 음악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및 페스티벌 등 음악 관련 프로젝트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GMC의 뮤직 홀은 사면을 통유리로 꾸며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이 공명 및 리허설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클래식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로 만들기 위한 금난새 감독의 의도다. 예술 전문 도서관, F1963 도서관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술, 사진, 음악, 건축 등 예술 전문 서적과 유명 작가의作品集 1만3000권을 보유한 곳으로 절판되어 희귀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비롯해 클래식 음악 악보와 DVD까지 두루 갖췄다. 연회비가 필요한 멤버십제로 운영되지만 1일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1960년대를 풍미한 서적의 아카이빙을 보여주는 전시도 함께 열리는 중이다.

3



주소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운영 시간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문의 051-756-1963

- 1 현대모터스튜디오 메인 전시관에서 열고 있는 개관전 <리플렉션즈 인 모션>
- 2 기존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레노베이션했다.
- 3 뮤직 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주 중인 금난새 감독.
- 4 크리에이티브 월에서 상영되는 디지털 아트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의 작품.
- 5 F1963 도서관은 미술, 사진, 음악, 건축 4가지 테마의 책을 볼 수 있는 예술 전문 도서관이다.
- 6 공장의 철판을 활용한 카페 테라로사의 커피 바와 테이블.



4



5



6



주소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167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7시
(카페 오후 9시)
문의 1899-6190



WEK BUSAN

언덕에 올라 바다와 숲의 풍경을 눈에 담기 좋은 달맞이고개에 또 하나의 매력적인 공간이 탄생했다. 지난 12월 문을 연 비아인키노 부산점 'WEK BUSAN'은 부산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명소가 됐다. 6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비아인키노 제작 가구와 루이스 폴센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조명, 미드센추리 모던 시대의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는 리빙 소룸, 카페, 큐레이션 서점, 패션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기 때문. 각 공간은 곳곳에 숲과 바다가 보이는 창을 다양한 크기로 내 탁 트인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모든 좌석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와 루프톱 공간은 부산 어느 곳에서도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어로 '영화처럼'이라는 뜻을 지닌 비아인키노는 일반 가구는 물론 어린이 가구나 반려동물을 위한 가구 등 색감이 돋보이는 다양한 가구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가구로 시작해 2017년부터는 서점 '라이프북스앤아트', 카페 '라이프커피 & 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브랜딩을 선보여왔다. 공간과 공간을 안락하게 구성하는 요소인 책과 커피 등을 즐기며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를 표방한다. 서점에서는 전시와 북 토크가 열리기도 하고, 작가를 포함한 북 큐레이션 팀이 아트·건축 전문 서적, 사진집과 소설 등을 엄선해 소개한다. 장미셀 바스키아, 사이 톰블리 등 유명 작가의 아트 포스터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페는 '브루Brew'를 콘셉트로 운영해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 대신 브루잉 머신으로 내려준다. 티는 과일, 허브를 기반으로 한 2가지 맛의 자체 블렌딩 티를 포함해 티 하우스와 제휴해 다양한 종류의 차를 낸다. 또한 층마다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나 주기적으로 바뀌는 패션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도 만나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한다.

베르크

개성 강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많은 부산에서 확실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로스터리 커피 브랜드 '베르크werk'. 다채로운 바바와 식당, 카페가 많은 거리인 전포동에 문을 연 뒤 4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사상구에 자체 로스터리 공장을 마련해 전국 100곳이 넘는 카페에 원두를 제공할 만큼 맛있고 질 좋은 커피로 유명하다. 르완다, 과테말라 등 다양한 산지의 농장에서 공수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선보이고, 브라운 슈거와 캐러멜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내는 자체 블렌딩 원두 '베이비'를 맛볼 수 있다. 머지않아 새로운 블렌딩 원두를 선보일 예정이니 시도해보길 추천한다. 감각적인 공간 디자인 또한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버려진 교회 의자를 활용해 고요한 예배당을 연상시키는 2층 공간과 어두운 조명에 스탠딩 테이블이 놓여 클럽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지하 1층의 대조가 흥미롭다. 지하 1층에서 바리스타와 상담을 통해 커피를 주문한 뒤 앰비언트 뮤직이 흘러나오는 2층에서 커피를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주소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15
운영 시간 평일 오후 1시~8시,
주말 및 공휴일
낮 12시~오후 8시 30분
문의 051-817-2111



대림맨션

휴양지의 들뜬 공기가 가득한 해운대 거리, 오션뷰 호텔과 대조되는 건물 대림맨션은 1975년에 지은 아파트로 여전히 거주민이 사는 공간이다. 지난해부터 편집숍, 갤러리, 카페 등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동으로 이뤄진 건물에 들어서면 타르트 숍 '홀리건 타르트'가 반겨주고 이어서 2, 3층에 띄엄띄엄 숨어 있는 작은 공간을 탐험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골조를 살려두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풀어낸 점이 흥미롭다. 특히 둘러보기 좋은 공간은 305호에 자리한 갤러리ERD 부산지점. 이태원의 갤러리와 같은 전시를 동시에 개최하기도 하고, 다른 전시를 열어 변주를 줄 때도 있다. 6월 26일까지는 최운형 작가의 <Trust Me> 전시가 열린다. 젠더, 자본주의 등의 주제를 블랙 코미디처럼 비틀어 보여주는 도발적인 시각이 돋보이는 전시다. 고유한 조향 방식과 감각적인 패키지로 인기를 얻은 뷰티 브랜드 논픽션의 쇼룸도 방문해봐야 한다. 207호는 쇼룸이고, 302호는 언택트룸으로 방해 없이 제품을 시향할 수 있다. 가구들이 배치된 공간에서 카드를 써볼 수 있도록 꾸며놓아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주소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2
운영 시간 매장 별도 문의
문의 갤러리ERD
070-4115-0419,
논픽션 051-747-4096



주소 수영구 황령산로 31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문의 070-7863-5066



프리젠트

햇볕을 쬐 수 있는 가든, 책과 커피, 가벼운 허기를 달래주는 베이커리. 휴식에 이 이상의 것이 필요할까? 부산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 드라이빙 코스로 유명한 황령산 초입에 자리한 '프리젠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인 곳이다. 디자인 스튜디오 프리젠트를 이끄는 강범규 대표가 꾸린 공간으로 인문학과 디자인 서적으로 이루어진 작은 서점 겸 카페다. 독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테라스 및 루프톱 공간을 갖추고 있어 매달 음악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 이따금 무용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강 대표가 고성호 건축가와 함께 완성한 건축물을 통해 공간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물을 지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았는데, 녹지와 어우러지게 건물을 설계하고 일부 천장을 개방해 하늘을 향해 열린 것 같은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만들었다. 주변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빨간 벽돌과 식물이 가득한 테라스 공간이 유럽 어느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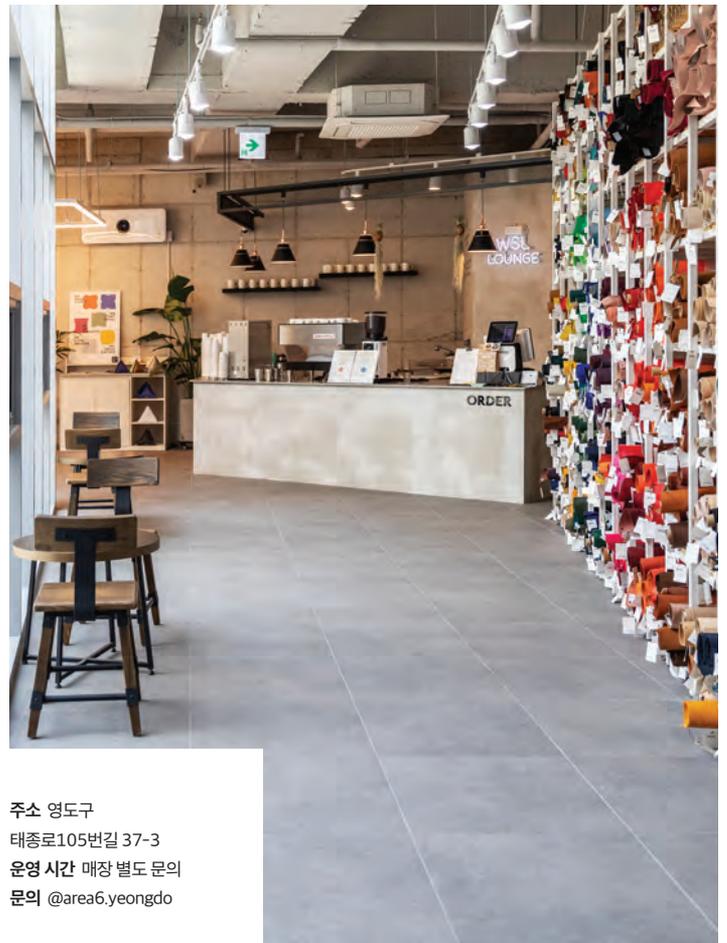
작년 부산비엔날레가 개최된 지역인 영도에 문을 연 '스크랩SCRAB'은 카페 겸 아트 숍, 전시장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아트 라운지를 표방하며 부산의 젊은 세대에게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올해 2월에는 오픈 첫 전시로 <What Is Your Favorite Cabinet?>을 열기도 했다. 부산과 서울 간의 문화적 교류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연회동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 '캐비닛 클럽'과 협업해 기획한 전시다. 일러스트, 그래픽, 영상, 타투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80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아트워크를 받아 포스터로 전시하고 이를 굿즈로 제작, 판매해 이목을 끌었다. 스텔컬러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해운대, 기장에서 볼 수 없던 색다른 부산의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 조선소가 많아 어선과 화물선 같은 선박들을 품고 있는 바다를 통창으로 바라보다 보면 항구도시의 맛이 살아 있는 부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주소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문의 @scrab_busan

아레아6

영도 봉래시장 근처 골목, 본래 오래된 주택 6채가 있던 땅에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올해 2월 오픈한 '아레아6'은 부산의 대표적 로컬 브랜드 삼진어묵의 비영리 법인 삼진이음이 완성한 곳이다. 삼진이음의 홍순연 이사는 지역민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과 창업 지원을 해온 이력을 살려, 근대화의 모습을 잘 간직한 영도 지역을 활성화하고 스몰 브랜드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기획했다. 건축을 전공한 홍 이사는 방문객들이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방에서 출입이 가능한 중정을 두고 이와 이어지는 3층 건물을 구성했다.

아레아6은 '아르티장 골목'을 콘셉트로 장인 정신을 지향하는 브랜드를 위한 플랫폼을 표방한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숍과 공유 오피스, 세미나 룸 등이 마련됐는데, 1층에서는 로컬을 주제로 작업하며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9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전국의 공예 장인들과 협업해 새롭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선보이는 '취프로젝트'의 쇼룸, 부산을 대표하는 타월 제조 브랜드 '송월타월'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 부산의 로컬 술을 만날 수 있는 주류 전문점 '부산주당' 등이 대표적이다. 2층에는 가죽 전문 브랜드 WSL의 카페와 숍이 자리하는데, 가죽공예를 위한 다양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브랜드들은 모두 지역의 가치를 지키거나 수공예로 창작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엄선한 것. 또한 공유 오피스 공간을 구성해 젊은 창업가를 위한 세미나를 열거나 3층 루프톱 공간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파티를 기획하기도 한다. 영도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로컬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도가 궁금하다면 방문해볼 만하다.



주소 영도구
태종로105번길 37-3
운영 시간 매장 별도 문의
문의 @area6.yeongdo



DESIGN SPOT

#오늘의숍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designspot.dh)과 네이버 포스트(c11.kr/designsp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T TOUR IN BUSAN 10

부산 국제화랑아트페어, 아트부산, 아시아호텔아트페어 등 주요 아트 행사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해운대부터 수영구 망미동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아트 거점 10곳을 거닐며 이 도시의 아트 트렌드를 살펴본다.

글 한동은 기자



해운대를 조망하는 가나부산.



리빈갤러리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운대 신도시 주거 공간에 자리 잡은 리빈갤러리. 주민의 일상 속 아트 공간을 표방하며 2016년 오픈했다. 동네 풍경에 잘 어우러지는 갈색 노출 콘크리트 외관의 리빈갤러리는 총 65평형의 단독 건물에 2개의 전시실로 이뤄져 있다. 리빈갤러리는 매년 6월부터 7월이면, 젊은 작가의 기획 초대전을 개최해 신진 작가를 소개한다. 2021년 4회를 맞이한 젊은 작가전 <STAGE4>는 4인의 작가와 함께한다. 자아를 상징하는 뿔을 시각화한 조형 작가 홍준혁, '문화프로덕션 똥강아지'를 설립해 아동 미술 교육 확장에 앞장서온 회화 작가 안윤순을 비롯해, 일상 속 장면을 무심한듯 따뜻하게 그리는 작가 여주경, 물질과 소유 욕망을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 임수정이 그 주인공. 6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운대구 좌동로63번길 2(051-746-9334)

가나부산

해운대 바다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가나부산. 1983년 설립한 가나아트가 2007년 7월 부산에 오픈한 지점으로, 미술품 경매 회사 서울옥션과 공간을 공유한다.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서울옥션 블루세일'은 부산의 컬렉터들이 모이는 인기 행사다. 2020년 10월 그랜드 조선 부산 재개관전으로 <카우스 & 캐릭터-리스틱>을 열며 카우스를 비롯한 아트 토이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5월 한 달간은 사석원 작가의 개인전 <새벽광야>를,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하태임 작가의 개인전 <마음의 정원에 핀 꽃>을 진행한다. 한편, 가나부산은 부산 CEO들을 대상으로 동서양 미술뿐 아니라 인문·철학·건축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나문화포럼'을 개최해 지역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4층(051-744-2020)

DATE GALLERY
MON, SAT 10:00-18:30 82-51-758-8845
www.gallery-date.com gallerydate@naver.com



데이트갤러리

2009년 개관한 데이트갤러리는 단색화와 전위예술 분야의 전시를 심도 있게 기획하고 소개한다. 한국의 전위예술 작가 김구림을 대중에게 알렸고 해마다 그룹전 <단색조의 회화전>을 선보이며 두 장르에 대한 갤러리의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애 대표는 “데이트갤러리는 백과사전식의 전시를 지양하고, 모든 기획전시에 비평을 담은 도록을 제작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컬렉터, 큐레이터, 딜러의 이해를 돕습니다. 문화적 심미안을 자극하는 학술성과 전문성이 데이트갤러리의 특성입니다”라고 말한다. 6월 5일까지는 작가 윤상렬의 개인전 <조금 어둡게 조금 밝게>를 진행한다. 종이와 필름에 직선을 반복적으로 긋고 층을 중첩해 완성한 선형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8번길5 2층(051-758-9845)

데이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조금 어둡게 조금 밝게> 전시.



<울림이 있는 공간>이 열리는 갤러리 조이 내부 전경.

갤러리 조이

‘웃는 얼굴’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순구의 개관전과 함께 달맞이길에 문을 연 갤러리 조이는 ‘행복을 공유하는 힐링 아트 공간’을 표방한다. 최영미 대표는 “생활 속에 예술을 더해 기쁨을 선물하는 갤러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갤러리 조이에 밝은 표정의 인물 회화나 따뜻한 색감의 작품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신홍직의 회화 전시 <울림이 있는 공간> 역시 따스한 기운의 작품들로 가득하다. 신홍직은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짜고 붓이 아닌 손과 나이프로 채색해 평화로운 풍광을 표현한다. 함께 운영 중인 갤러리 조이 아트 숍에서는 도자, 금속, 목공, 섬유 칠공예 등의 아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56(051-746-5030)



맥화랑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맥화랑은 예술 작품과 부산의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현대미술 기획 전문 갤러리다. 김정원 큐레이터는 “녹음이 우거진 나무와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맥화랑에서 자연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라며 여름의 맥화랑에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 맥화랑은 특히 2007년부터 1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의 작품을 소개하는 <10-100만원, 행복한 그림전>을 매년 개최하며 미술품 소장자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 서왔다.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부산 출신의 드로잉 작가 청신의 개인 초대전 <Black Neon : 어떤 정물>을 개최한다. 맥화랑에서 아홉 번째 개인전을 여는 작가는 정물 시리즈 ‘블랙 네온’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나길 162 2층 (051-722-2201)

제러미 토머스, '나프탈렌 블루스'



워킹하우스뉴욕

'걸어 다니는 집'을 의미하는 워킹하우스뉴욕은 해외 미술 전문 문화·예술 기획사로 지난해 9월 수영구 망미동에 오픈했다. 이곳이 특히 주목하는 건 유행하는 화풍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현하며 비주류의 흐름 속에 있는 '아웃사이더 아트' 장르다. 3월에는 <아웃사이더X인사이드: UN평화국제교류기구 기금 마련전>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6인의 해외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를 소개한 바 있다. "현재 뉴욕, 홍콩, 런던 그리고 북유럽에서 약 250점 정도 작품을 유입했으며 앞으로 해외 예술 문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 전시를 계속 열 계획입니다." 수이 강 대표의 말이다. 7월 31일까지 공기와 색에 대해 다루는 미국 조각가이자 전속 작가 제러미 토머스의 개인전 <아로마틱>을 진행한다. 수영구 좌수영로 125번길 14-3(051-759-8186)



이지는, '요가하는 사람들'



오브제후드 갤러리

작년 8월, 수영강 앞의 크리에이티브센터 1층에 자리 잡은 오브제후드 갤러리는 깔끔한 외관의 건물과 나무로 둘러싸인 중정이 아름다운 곳이다. 미니멀리즘에서 등장한 개념인 '오브제후드'란 사물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 자체의 성질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순수한 사물의 개념을 해석하며 작품 활동 중인 신진 작가를 소개한다는 갤러리의 콘셉트를 담고 있다. 기획전마다 가벽으로 공간 구획을 새롭게 하며 갤러리를 찾는 관람객에게 신선한 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 6월 30일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는 6인의 작가가 회화, 가구, 영상, 도예, 유리공예로 따스한 봄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이는 <봄의 조각>전이다. 수영구 좌수영로 135 1층(070-4647-3507)



<봄의 조각>전이 열리고 있는 오브제후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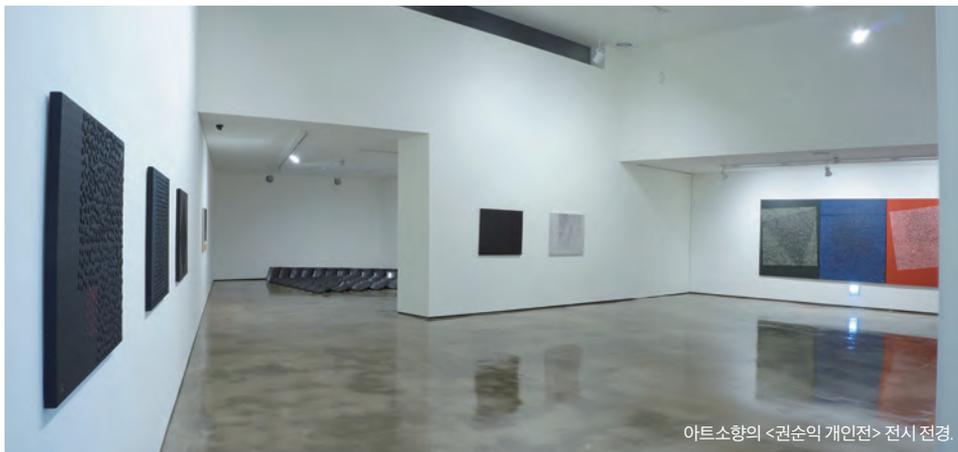


<사물의 뒷모습>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 부산.

국제갤러리 부산

중로구 삼청동의 국제갤러리가 수영구 망미동의 복합 문화공간 'F1963'에 두 번째 지점을 개관했다. 2018년 8월, 현대사진의 거장 구본창 개관전을 시작으로 덴마크 작가 그룹 슈퍼플렉스, 호주 출신 작가대 니얼 보이드 등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장르를 넘나드는 세계적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약 100평 규모의 공간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한국 현대미술계의 중추적 작가, 안규철의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이 7월 4일까지 열린다. 작가의 1992년 첫 개인전 작품부터 신작까지 약 30년간 변화해온 작업이 한곳에서 펼쳐지는 자리다. 주요 작품 중 소실된 작품을 복원하거나 축소하는 형태로 재현해낸 오브제 및 회화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051-758-2239)



아트소향의 <권순익 개인전> 전시 전경.

아트소향

부산의 경제·문화 중심지 센텀시티에 2013년 개관한 아트소향은 신진 작가의 작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남은진 대표는 "본인이 자란 지역색과 국제적 감각, 고유의 감성과 보편적 미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한다.

6월 5일까지 이곳에서 개인전을 여는 권순익 작가 역시 한국 고유의 색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다. 전시는 온라인 전시 플랫폼 '코리아 아티스트(koreanartists.com)'에서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6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스피크, 고독 등 나약한 감정을 회화와 조각으로 표현하며 치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이징 작가 감성빈의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B1(051-747-0715)



김이박, '식물요양소'

부산시립미술관

파도를 닮은 건물 외관으로 해양 도시 부산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미술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개로 나뉜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 조각공원 부지 내에 '이우환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3층 대전시실 4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관람객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토록 아름다운>이 열리는 중. 3가지 섹션이 이어지는 전시에서 지난해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친 에이스트릭트의 미디어 아트 작품 'Starry Beach'를 비롯해 다채널 사운드 설치 작품, 3D 애니메이션 등 국내외 작가 11인의 작품 5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해운대구 APEC로 58(051-744-2602)



닷성기광 & 김주윤 대표

경험 가능한 세계를 확장하는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 점자 기기를 개발해 주목받은 소셜 벤처 기업 '닷'.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성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세상을 접하는 방식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을 활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한 이 키오스크는

부산시 모든 지하철 역사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글 안서경기자 | 사진 이창화기자

스티비 워더, 안드레아 보첼리가 출시 전 선주문한 점자 시계 '닷 위치', 미국 교육부 지정 시각장애인 교구로 채택된 점자 스마트패드 '닷패드'. 2015년 창업 이후 소셜벤처 기업 '닷'이 일궈낸 성과다. 닷은 112개가 넘는 원천 특허 기술을 개발해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지도, 수식 등 그래픽 영역까지 촉각 패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전 세계 IT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과 유타 대학에서 각각 유학을 하며 창업의 꿈을 키운 김주윤·성기광 대표. 김 대표는 유학 시절 시각장애를 겪는 룸메이트를 통해 무겁고 큰 점자 기기의 불편을 목격했고, 귀국 후 오랜 친구인 성 대표와 함께 이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전했다. 점자 기기의 원리를 익히고, 3년여의 제품 개발과 1년여의 시험 판매 기간을 거친 그들은 촉각 패드의 크기와 무게를 20분의 1로 줄였고 가격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스마트 점자 시계 닷 위치를 출시했다. 점자를 몰라도 점자판의 돌기인 '촉각 셀'을 통해 시간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정보를 점자로 변환해주는 기능까지 갖춘 기종이다. 언어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13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장애에 낯선 시선을 보내지 않고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이 확립된 환경을 경험한 뒤 제가 치관이 온전히 바뀌었죠. 세상에는 많은 불편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일 테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기술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김 대표의 말이다. 초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닷은 촉각 터치 기술을 스마트패드 형태로 만든 닷 패드를 연이어 양산 중이다. 패드에 점자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20개국에 진출한 닷은 파타고니아, 탐스 등이 받은 글로벌 사회적 기업 확인증 '비콕B-corp 인증'을 받기도 했다.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

20대를 점자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두 대표는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퍼스널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닷 키오스크'를 선보인 것이다. 닷이 개발한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패드 지도와 음성



1 촉각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닷패드. 시각장애인도 점자로 그래픽 작업이 가능해 게임, 액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20개국에서 판매 중인 닷 위치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3 부산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역에 3대가 설치된 닷 키오스크. 올해 부산시 114개 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성기광 & 김주윤 1990년생 친구 사이인 두 대표는 미국에서 함께 트럭 공유 경제 서비스 앱을 창업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뒤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창업을 하고자 2015년 닷을 세웠다. 닷 위치를 선보인 뒤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칸 국제광고제 혁신부문 금상 등을 수상했고, 이어서 닷패드와 키오스크를 출시했다. 닷은 총 누적 투자 금액 120억 원을 달성하며 끊임없이 R&D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과 자막,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자동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췄다.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조사하다 보니 점점 문제가 광범위해지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과 정보는 발전하지만 '디지털 불평등'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는 걸 간과한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성기광 대표의 말이다.

도시의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 및 결제를 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으면 높이가 맞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없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이용이 어려운 이들 또한 분명 존재한다. 닷의 기술은 비단 장애인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등 기술에 접근하기 불편한 이들을 포용하는 역할도 한다. 닷 키오스크는 강남구청, 인천 서구 등 민원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박물관, 공항 등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모두 호응을 받고 있다.

배리어프리, 스마트 시티의 요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내거는 스마트 시티(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해 활용하는 도시)의 개념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십수 년 전부터 대두되어온 배리어프리는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닷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단 1명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사회와 그저 생색 내듯 약자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펴내는 사회는 다른 차원의 사회일 겁니다"라고 김 대표는 말한다. 닷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산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돼 부산역, 서면역에 키오스크를 설치했고 올해 부산시 114개 모든 역사에 키오스크 설치를 앞두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전용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보완하며 진화 중이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성 대표가 덧붙였다. "장애의 유무, 국적,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근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파편화된 제도와 서비스를 통합해 닷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끌고 나가야죠. 닷의 키오스크를 루브르박물관 같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만날 날이 머지않을 겁니다."

BY THE SEA

여름이 되면 자연스레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해변의 이름을 입력한다. 광활한 부산의 해변과 마주한 4대의 프리미엄 SUV.

GUEST EDITOR LEE SEUNGRYUL PHOTOGRAPHER PARK WONTAE



Cadillac XT6

'XT6'의 디자인은 역동적이다. 특히 메시 그릴과 보디 킷 스퀘어 타입의 듀얼 머플러를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물씬 풍긴다.

이런 분위기는 주행 성능으로 이어진다. 3.6리터 6기통 가솔린엔진을 장착하고 최고출력 314마력과 최대토크 38.0kg·m의 성능을 뽐낸다.

액티브 스포츠 새시를 기반으로 하는 서스펜션은 노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회전 구간에서 차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실내 공간은 깔끔하고 세련되게 완성했는데, 특히 성인 2명이 앉아도 불편하지 않게 구성된 3열 공간이 인상 깊다.

다리 공간뿐 아니라 헤드룸도 945mm로 동급 차량 중 가장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Mercedes-Benz GLS 580 4MATIC

'GLS'는 'SUV계의 S-클래스'라 불린다. 위풍당당한 풍채만큼 주행 감각도 여유롭고 편안하다. V형 8기통 가솔린엔진을 품고 최고출력 489마력과 최대토크 71.3kg·m의 힘을 뽐낸다. 커다란 덩치에도 뒤뚱거림이 전혀 없는 빠른 반응속도가 일품이다.

부드러운 승차감도 빼놓을 수 없다.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장착해 달릴 때는 낮아지고 오프로드 모드에선 자동으로 높아진다. 백미는 실내다. 특히 2열 공간은 S-클래스만큼 여유롭다.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MBUX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춰 뒷좌석에서 인터넷은 물론 영화 감상도 가능하다. 이 정도면 비행기 일등석이 부럽지 않다.

Audi Q7 55 TFSI Quattro Premium

날카로운 직선으로 전면과 후면, 측면을 또렷하게 다듬었다. 단정하고 강렬한 이미지다.
세련미를 완성하는 건 기술이다.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를 장착했다.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이나 자전거를 감지하고 문을 잠그는 하차 보조 시스템이나
주행 중 사각지대에 근접한 차량이 있을 때 사이드미러를 통해 경고를 보내는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파워트레인은 든든하다. 3.0리터 가솔린엔진과 8단 팁트로닉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340마력과 최대토크 51.0Kg.m의 역동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풀타임 사륜구동 기술인 콰트로 드라이브는 고속 주행이나 코너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Land Rover Range Rover SDV8 Vogue SE

레인지로버는 호화 SUV의 대명사다. 출시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감성 품질이 정상급 SUV답다. 최고급 호텔이 연상되는 실내는 만지는 것마다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2021년형부터는 편의 및 안전 장비도 대거 적용했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는 긴급 제동장치도 탑재했다. 하지만 레인지로버의 진가는 오프로드에서 드러난다. 노면에 따라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과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 등 여러 가지 기술을 탑재해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 훌륭한 파트너가 된다.

문의 랜드로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080-001-1886), 아우디(02-6009-0000), 캐딜락(080-3000-5000)

HOTEL RESTAURANT

여름이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은 다채로운 호텔 경험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부산의 특급 호텔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다이닝 4

글 한동은 기자

닉스 그릴 & 와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1981년 개관 이래 40년간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아온 해운대의 터줏대감이다. 이곳 신관 2층에 자리한 '닉스 그릴 & 와인'에서 해운대를 조망하며 럭셔리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주방을 총괄하는 다니엘 황 셰프는 이탈리아, 프렌치, 아메리칸 퀴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틀에 갇히지 않는 그만의 트렌디한 해석법으로 요리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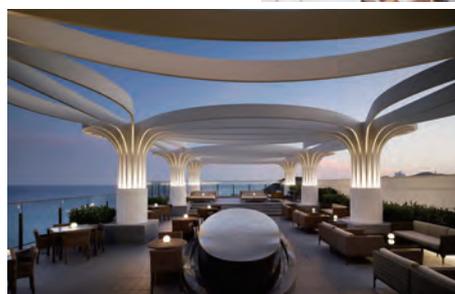
닉스 그릴 & 와인의 타파스는 가볍게 먹기 좋은 '핀초'와 '팬 타파스' 2종, 그리고 담백한 '치킨 파니니 버거'로 구성된다. 핀초는 훈제 연어, 가리비, 새우, 카프레제 등 다양한 재료를 바게트와 함께 한입에 즐기는 메뉴로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팬 타파스는 '오일 새우 타파스'와 '쇠고기 버섯 타파스' 중 고를 수 있다. 닉스 그릴 & 와인에서는 식사에 꼭 와인을 곁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와인 스펙테이터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 어워드'를 수상한 와인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051-749-2274)



맥퀸즈 바, 아난티 힐튼

올여름, 부산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난티 힐튼 부산 최상층에 자리한 '맥퀸즈 바'가 제격이다. 소란한 부산의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기장군에 위치해 좀 더 여유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야외 테라스가 있는 독특한 구조물이 부산 바다의 넘실거리는 파도를 연상시킨다.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인 '소프트 셸 크랩 슬라이더'는 이국으로 여행 온 듯한 분위기를 안겨준다. 이 버거의 번에는 후추, 파프리카를 포함한 18가지 향신료가 조화를 이루며 주로 남미에서 사용하는 올드 베이 시즈닝을 발랐다. 소프트 셸 크랩은 고유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튀기기 전, 청주에 담갔고 통째로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 빵 윗부분에는 게의 더듬이를 연상시키는 핫소스를 꽃아 마무리했다. 일명 '핫소스 더듬이'는 튀김 요리의 느끼함을 잡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아난티 힐튼 부산 이슬잎 과장은 맥퀸즈 바에서 상반된 낮과 밤의 분위기를 모두 느껴볼 것을 추천한다. "맥퀸즈 바의 루프톱 테라스에서 낮에는 부산의 자연을, 밤에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화려한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051-509-1111)





차오란, 시그니엘 부산

2020년 6월에 오픈해 이제 막 1년을 채운 '차오란'은 1920년대 홍콩을 고스란히 재현해 여행을 그리워하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차오란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초연超然'으로, 그 시대 홍콩에서 유행하던 아르데코풍 인테리어가 진정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런던의 미쉐린 중식 레스토랑 '하카산 런던', '파크 쉬노아' 출신 셰프 리쯔량이 콘셉트 개발과 메뉴 큐레이팅을 총괄 기획했다. 광동식으로 조리한 '차오란 덕'은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 정용재 조리장은 "페킹 덕과는 다르게 살과 껍질을 분리한 후 소스를 부어서 제공해 더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른 인기 메뉴인 '모듬 덤섬'도 추천한다. 오징어 먹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얹은 새우 교자와 트러플 향을 입힌 비건 덤섬인 아스파라거스 버섯 덤섬, 중국 과일 리치로 속을 채운 리치 과육 새우 교자로 구성했다. 해운대구 달맞이길 30(051-922-1250)



다이닝 룸, 파크 하얏트 부산

파크 하얏트 부산의 32층에서 만날 수 있는 '다이닝 룸'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뷰와 화려한 마린시티의 마천루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중심부에 자리한 오픈 키친에서 여름에 어울리는 참숯 그릴로 바비큐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건 덤이다.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메뉴는 약 1kg의 압도적인 크기와 야생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얼굴만 한 크기의 뼈에 갈빗살이 두툼하게 붙어 있어 씹는 맛이 좋고 육즙 역시 풍부하다. 성인 2~3인이 함께 먹기에 충분한 양이다.

파크 하얏트 부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의 이지홍 팀장은 "다이닝 룸은 시시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광안대교 야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토마호크 스테이크에 화려한 야경을 곁들인다면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특히 광안리의 수려한 밤 풍경을 감상하고 싶은 이들에게 파크 하얏트 부산의 다이닝 룸을 추천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51(051-990-1300)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2021 부산디자인위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1 부산디자인위크가 개최된다. 창의적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기업과 스몰 브랜드, 크리에이터들의 문화에 대한 통찰을 담은 포럼을 통해 디자인 감각을 길러볼 수 있는 기회다.

글 안서경 기자



1,2 아트 플랫폼 피노크의 컬렉션. 리디아 하드워의 세라믹 포트와 마리아 에노모토의 유리 공예 작품.

3 신진 작가 황다영의 작품은 유기적 곡선이 만들어내는 위트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4** 에디티드 서울 호텔 안테나룸에서 열렸던 <뉴호-옴 전>을 부산디자인위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5 행사 기간 동안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가 동시 개최된다.

6 지난해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전시장의 풍경.



부산 최초의 디자인 전문 전시회

디자인 축제는 도시의 디자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생태계를 풍부하게 다지는 역할을 한다. 밀라노의 살로네 델 모빌레(Salome del Mobile), 뉴욕 바이 디자인(NYCxDesign) 페스티벌 등 세계적 명성을 얻은 디자인 축제는 수많은 디자인 애호가 및 기업의 관심과 애정을 불러 모아, 도시 자체가 문화적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일조한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게임 전시회 G스타 등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를 선도해온 도시 부산에서 '2021 부산디자인위크'가 열린다. 지난 20년간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개최해온 디자인하우스가 부산·경남의 대표적 방송사 KNN 그리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행사를 공동 주최해 한층 전문적인 디자인 전시회를 구성했다. 2021 부산디자인위크는 한자리에서 디자인 분야의 모든 산업을 망라한 행사로 이루어진다. 그래픽, 지속가능, 공예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디자이너 브랜드를 전시하고, 1980년대 신발 제조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부산의 옛 명성을 이어받아 패션 및 슈즈 브랜드를 소개하는 '패션슈즈랩' 부스도 준비했다. 다채로운 기획전·특별전도 열리는데, 영화 및 게임 디자인 전시와 1970년대 아파트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뉴호-옴 전> 등 흥미로운 전시를 둘러볼 수 있다. 재능 넘치는 디자이너를 발견하는 '메이커스 인 부산', '부산 스토리전' 등 로컬 콘텐츠를 다루는 공간도 있다.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장도 펼쳐진다. 부산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해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브랜딩 등 창조적 산업에서 독보적 커리어를 지닌 전문가들이 디자인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같은 기간에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파크 하얏트 부산을 거점으로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IBDA)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많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3



4

디자이너들의 창조성을 발견하는 장

이번 부산디자인위크는 감각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접하고, 새로운 디자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 우선 일상 가까이 즐기는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디자인 컬렉션' 부스에서는 '취향의 조각들'이라는 콘셉트로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발굴하는 아트 플랫폼 '피노크'의 컬렉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피노크는 이국적인 패턴이 깃든 도자를 선보이는 영국 도예가 리디아 하드윅 Lydia Hardwick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공예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왔는데, 부산에서도 컬렉션을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디자인 축제의 묘미인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도 있다. 2020 SDF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에 참여한 디자이너 8인이 참여하는 컬래버레이션 전시가 열린다. 가구와 화병 같은 오브제를 접한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획전의 구성도 화려한데, 영화 디자인 전시에는 영화 <기생충>의 가구를 담당한 박종선 디자이너의 작품을 포함해 국내 대표적 영화에 등장하는 작품을 새롭게 구현했다. 이 외에도 게임 디자인, 요트 디자인 전시를 선보인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행사는 부산글로벌디자인포럼. 올해 주제는 '성공적인 디자인 컬렉티브'로, 유연한 연대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이들을 연사로 초청했다. 이케아 인테리어 디자인 리더 안톤 호크비스트, Z-Lab 노경록 공동대표 등 전문가의 강연을 꾸렸고, 부산 로컬 브랜드인 삼진어묵의 비영리 법인 '삼진이음'의 홍순연 이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디자인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2021 부산디자인위크에서 국내외의 디자인 브랜드, 기업, 디자이너의 콘텐츠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 일상의 영감을 충전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5



6

SUMMER DRINK

화창한 날씨와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초여름.
야외에서 즐기기에 좋은 4가지 음료 테이블을 소개한다.

EDITOR LEE YOUNGCHAE PHOTOGRAPHER YUM JUNGHOOON STYLIST YOO JIHYE



Afternoon Tea Table

직사각형 틴 케이스에 든 '얼그레이 티 비스킷'과 오렌지 블라섬 향 및 은은한 꽃향기가 매력적인 '포트메이슨 티 비스킷', 원형 틴 케이스에 든 '루이보스 인퓨전', 유리병에 든 '레몬 커드', 민트색 문양의 틴 케이스에 든 아삼과 제스민을 블렌딩한 '셀러브레이션 블렌드 티', 레몬 커드를 홍차와 결합해 만든 찻잔 속의 티 백 '오디티 레몬 커드' 모두 포트넘 앤 메이슨. 케이크와 청포도를 담은 2단 케이크 스탠드는 더콘란샴. 냅킨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파시폴리아' 티 컵 & 소서, 비스킷을 담은 사이드 플레이트, 빵을 담은 디너 플레이트, 티포트, 골드 커틀러리 모두 에르메스. 화이트 폴 레이스 티 컵 & 소서는 로얄코펜하겐.



Fruit Juice

니트 쿠션, 사각 우드 트레이, 라탄으로 커버링한 플라스크, 컬러 모두 리비에라메종.
 음료를 담은 라탄 리드 피쳐와 텀블러 모두 더콘란샴. 컬러 속 냅킨,
 꽃을 꽂은 유리 화병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사운드 왜곡을 줄여주는 헤드폰 '에어팟 맥스'는 애플.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포터블 LED 랜턴은 발뮤다.



Beer

슬리퍼는 펜디. 매듭 패턴의 비치백, 파나마 햇 모두 에르메스. 모자 아래 놓인 트래블 북 컬렉션 <모로코>와 <바르셀로나>, 플레이 카드, 아르센 파우치, 제임스 핑퐁 세트 모두 루이비통. 다양한 맥아를 블렌딩한 앰버 에일 '아크, 여수', 테이블 위 감귤과 솔 향이 어우러진 '아크, 페일에일', 맥아의 고소함과 진한 허브 풍미가 어우러진 '아크, 비하이', 필스너 맥아를 베이스로 한 라거 '찐한 맥주' 모두 아크비어. 예싸이의 아이보리색 블랭킷, 추상적인 패턴의 쿠션, 케이맷 런던의 메탈릭 랩 트레이 모두 더콘란삼. 펜들턴의 비치 타월은 파커스인터내셔널. 테이블 위에 놓인 포터블 미니 빔 프로젝트 'GS2'는 벤큐. 맥주 컵은 리비에라메종. 본에나멜웨어의 범랑 소재 컵, 원형 접시 모두 노아소품. 마샬의 콤팩트한 '엑스브릿지 보이스' 블루투스 스피커는 소비코AV.



Wine & Spirits

버번 배럴에서 숙성하고 소비뇽 블랑 캐스크에서 피니싱해 꽃사과 향과 소비뇽 블랑의 풍미가 느껴지는 위스키 '오켄토션 소비뇽 블랑'은 빔산토리코리아. 이탈리아 코네그리아 발도 비아덴 지역의 최상급 포도 품종 글레라 베이스의 상급한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1868 프로세코 DOCG'는 인터리커. 아이스 버킷, 얼음 집게 모두 알레시코리아. 화이트 와인을 담은 글라스, 라틀리에 뒤 뱅의 와인 오픈너 모두 더콘란샵. 예코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은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르티에게서 영감을 얻은 100% 소비뇽 블랑의 '소호', '스텔라' 소비뇽 블랑은 씨에스알와인. 삼각 형태의 '와이드 브레이드 플렉' 미니 백은 헬렌카민스키. 칵테일 셰이커와 바스폰, 골드 지거 모두 이홍바. 가족 핸들의 라탄 소재 트레이는 에르메스. 6~8°C로 chilling하면 과일 향과 꽃향이 풍성해지는 보르도 화이트 와인 베이스의 프렌치 아페리티프 '릴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얼음을 넣어 마시거나 칵테일 만들기 적합한 리큐어 '볼스 핑크 자몽'은 디앤피스피리츠. 리넨 테이블클로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제품 협조 노아소품(@bornnename.kr_official), 더콘란샵(531-2591), 디앤피스피리츠(031-757-4600), 로얄코펜하겐(749-2002), 루이 비통(3432-1854), 리비에라메종(547-1977), 발뮤다(710-4100), 빔산토리코리아(1577-6075), 소비코AV(525-0704), 씨에스알와인-아크 비어(535-8407), 알레시코리아(3481-0900), 애플(apple.com/kr), 에르메스(542-6622), 이홍바(576-7758), 인터리커(6235-1075), 파커스인터내셔널(3662-3974), 펜디(2056-9023), 포트넘 앤 메이슨(www.fortnumandmason.com), 페르노리카 코리아(3466-5700), 헬렌카민스키(517-1983)



LUXURY

'럭셔리'는 물질을 앞서는 정신의 풍요라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럭셔리>는 명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드리는 잡지입니다.

Since 2001, Monthly <LUXURY> has captivated an ultra-affluent market with authoritative coverage of luxury lifestyle. <LUXURY> brings to life the flair and artistry of the brands that matter most to a sophisticated readership.

BUSAN

BUSAN
DESIGN
WEEK

<사전등록 허러가기>



부산 디자인위크

기간 2021년 6월17일(목) ~ 20일(일), 4일간
장소 부산백스코제2전시장
관람시간 6월17일(목) ~ 19일(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6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 매표 및 입장 마감 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

티켓 **현장구매가 1만원**
※ 6월 11일까지 부산디자인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시,
50% 할인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핫한 디자인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부산디자인위크가 6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 전시와 눈길을 확 사로잡는 디자인 제품들은 물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콜렉션과 디자인의 최신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국제디자인포럼까지!
수준 높은 콘텐츠의 깊이를 부산디자인위크에서 느껴보세요.

🌐 www.designweek.co.kr @ [@busan.designweek](https://twitter.com/busan.designweek) ✉ BDW@design.co.kr

주최
(주)디자인하우스,
(주)KNN,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주관
월간<디자인>



Joséphine Collection

—
CROWN YOUR STYLE

CHAUMET
PARIS